

# 退溪의 統合敎育思想 研究\*\*

李 海 明\*

## • 目 次 •

I. 연구의목적	1. 敎育목적의 통합
II. 심리학적 敎育탐구의 한계성	2. 敎育방법의 통합
III. 퇴계의 천인합일사상	V. 결론
IV. 퇴계의 통합적 敎育사상	

## I. 연구의 목적

敎育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즉, 敎育학은 철학이나 사회학 또는 심리학의 이론을 敎育에 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敎育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할 때에 그 기본이 되는 이데올로기는 철학이 되거나 사회학이 되거나 심리학이 되어 왔다.

敎育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철학이 敎育학을 지배해 왔고, 19세기이후는 심리학이 敎育학을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敎育학의 기초로서 심리학이 지니고 있던 권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리학적 사유방식이 너무 기계적이기 때문에 敎育적 사유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하게

\* 단국대 敎育학과 교수

\*\*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제4호(1990) 게재논문

말하면 심리학적 접근방법이 교육학을 기술로 한정시켜 버렸으며, 따라서 모든 현대 교육의 문제는 여기서 파생된다는 것이다.<sup>1)</sup>

다시 말하면, 현대 교육학은 심리학적인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설계하는 사고의 기초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내용이나 방법을 수정해 보았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의 내용을 아무리 고쳐 보아도, 또 아무리 새로운 학습기재를 사용해 보아도, 교과서 개편의 기준이 되고 학습기재 제작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교육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필자는 여기서 퇴계의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퇴계의 이데올로기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현대 교육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심리학적인 교육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퇴계의 天人合一사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심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셋째, 퇴계의 天人合一사상은 교육의 실제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즉, 퇴계는 교육목표나 교육방법 등을 어떤 사상의 기초 위에서 설계하고 있는가? 이러한 세 가지 문제의 탐구를 통하여 심리학적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육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한다.

## II. 심리학적 교육 탐구의 한계성

현대 교육은 왜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현대 교육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여

---

1) 이러한 논리는 James Macdonald, Dwayne Huebner, Herbert Kliebard 등에 의하여 6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러가지 원인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을 연구하는 사고의 기초가 심리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미국 교육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교육학자들인 Edward Thorndike와 John Dewey는 모든 교육의 문제들을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Thorndike는 교사들이 그들의 직감이나 우연 또는 개인적 수완에 의해서 교육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학습의 원리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육이 과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완전한 심리학은 모든 사람의 지성·성격 그리고 행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성의 변화에 대한 모든 원인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육적 힘이-어떤 다른 사람을 또는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의 행위-나타내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은 우리가 화학적 요소들을 이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결과와 같은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세계의 복리를 위하여 인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그런 완벽한 과학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열이나 빛을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완벽한 과학에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sup>2)</sup>

Dewey도 교육적 탐구에 가장 적절한 사고 모형은 과학이라고 보았다. 그의 사고는 목적을 정하고 수단을 강구하는 “means-ends”식 방법이며, 그 정신에 있어서 단선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Thondike와 Dewey는 교육적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을 과학에 두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Franklin Bobbitt나 W.W. Charters는 교육과정의 설계를 과학적인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Bobbitt는 교육과정에

---

2) Edward L. Thorndike "The Cotribution of Psychology to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I, 1910, pp. 6~8.

계획하는 것이 사회적 조정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위의 분석(activity analysis)을 통하여 얻어 내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행위의 분석을 통하여 복잡한 기술이 작은 기술로 분할되고, 그것은 다시 S-R의 기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Thorndike가 지지해 왔던 과학적 교육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습이란 구체적인 특별한 단위의 증가나 연합이라는 것이다.<sup>3)</sup>

Bobbitt나 Charters의 이론은 Ralph Tyler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형으로 완성된다. Tyler는 1950년도에 출판된 *The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이라는 책에서 교육적 사고의 틀을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체계화시켜 놓았다. 즉,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첫째, 교육의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둘째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셋째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하고, 넷째 평가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교육과정의 설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틀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통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협소한 의미로 축소되었다. 즉, Carl Bereiter, Robert Gagné, Robert Glasser, Robert Mager, James Popam 등에 의하여 목표의 분석이 보다 세밀한 작업으로 발전되었으며,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교육적 사고의 핵을 이루게 되었다. 수치나 실험의 결과를 통한 사실만이 교육적 탐구의 결과로 중시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리학적 사고 모형은 교육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육을 학습과 동일시해 왔다. 그러나, 학습은 교육의 일부분이거나 교육을 하기

---

3) Elliot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5), pp.10~11.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적 관심은 교육에 있는 것이지 학습이나 심리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적 지식이 교육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교육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심리학은 순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다른 응용과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학인 것이다. 한편으로, 심리학적 지식이 다른 분야에서 응용될 때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심리학적 지식이 교육학에 응용될 때는 그것이 하나의 도구적 지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다. 즉, 교육학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도구적 지식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구적 지식들은 어떤 활용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지식이 갖는 활용성을 두 가지 의미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술적 활용 가치다.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발견된 지식이 공학에서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것이다. 또는, 경제학에서 도출된 원리가 실물 경제에서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것이다. 같은 예로, 심리학의 지식이 교육학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활용방법은 순수과학에서 도출된 원리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되는 경우다. 즉, 이제까지 사물을 보던 것과는 다른 시각이나 가설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심리학, 특히 행동과학의 중요 관심사는 기술적 활용 가치 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행동과학에서는 교육을 기술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 B.F. Skinner는 “교육이란 강화를 배열하는 것이다(Teaching is simply the arrangement of contingencies of reinforcement)”라고 단언하고 있다.<sup>4)</sup> 강화의 원리 속에는 새로운 원리의 창출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분야일 뿐이

4) B.F. Skinner, *The technology of Teaching*.

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의 효과를 심리학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행동과학에서는 교육을 훈련(training)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지, “initiation”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학적 특성은 교육현실에 어떤 형태로 투영되는가? 또는 어떤 교육적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는가? 교육학자들이 심리학을 오랫동안 사고의 틀로 사용해온 두 가지 중요한 부작용은 학습과 교육목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너무나 깊숙히 교육학자들의 뇌리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미신에 가까울 정도다. 그것을 거부하면 신의 노여움을 당하는 것처럼 목표와 학습을 중시한다.

그러나, 학습이란 단지 가설에 의해서 정립되는 개념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표가 교육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것은 심리학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가설에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온 관계로 교육의 문제를 “목표”와 “학습”이라는 두 개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설계할 때에 우선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 것인가가 교육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사고가 means-ends식의 도구적이고 기능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인간의 행위는 관찰 가능한 보다 단순한 행위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도 가능한 최소한도의 단위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기에서는 모호하거나 막연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분석이 불가능한 모호한 것은 교육의 목표에서 제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에서 논의하는 영원이나 초월 등은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목표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Marshall McLuhan은 문학이나

철학 또는 종교에서의 진리가 과학적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학을 예술이나 윤리, 또는 종교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의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입장은 결국 명백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유리된 인위적인 가설에서 출발하는 수학적 논리만을 진리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믿음이나 아름다움 또는 도덕적 세계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 진리나 철학 또는 예술에서의 진리는 결국 만인이 인정하는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취급받게 되었다.<sup>5)</sup>

심리학,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여타의 모든 교육활동을 지배하는 means-ends 식의 기능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었으며, 따라서 교육목표도 가능한 한도내에서 분석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로 철학이나 예술 등의 과목은 교육목표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학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되었다. 따라서, 학습의 내용은 정해진 목표를 메우는 (fill-in) 기계적인 속성만을 갖게 되고, 학습의 방법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공간적이 아니라 일시성(temporality)이라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견해다.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비해서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재를 공간화(spatialize)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학이 행동주의자들의 예측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실존성을 무시하려 한다는

---

5) Marshall McLuhan, *Gutenberg Galaxy*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2), pp.166~167.

것이다. 따라서, 행동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만을 학습에서 고려하고, 인간의 일시성(temporality)과 관련이 있는 예외성이나 불개변성(irreversibility) 등의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sup>

학습의 방법에 있어서는 능률성의 원칙을 제일 중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해진 과제를 얼마나 능률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이 신봉하는 효과적인 학습은 강화를 통한 훈련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과 훈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는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많이 학습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의 과정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은 그대로 기계적인 훈련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현대 교육의 위기가 어디서 연유하였으며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현대교육의 위기는 교육학이 심리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dward Thorndike 이래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해온 심리학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학의 영향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심리학 중에서도 행동과학의 논리가 교육학을 지배하게 되었다. 심리학적인 사고의 틀은 모든 사물을 means-ends의 식으로 보려는 것인데, 그러한 논리는 사물을 조직화하고 기계화함으로써 교육의 의미를 “훈련(training)”의 과정으로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다. 특히, 이러한 논리의 결과로 교육학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것은 교육의 목표와 학습이라는 두 가지 명제 뿐이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중요한

---

6) Dwayne Huebner, "Curriculum as a Field of Study", *Precedents and Promise in the Curriculum Field*, ed, Helen F. Robinson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p.98~99.



것은 훈련이 아니라 안목(insight)을 높여주는 것이며, 실용적인 효과(technological use)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disclosure use)라고 볼 수 있다. 분명 교육학은 심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Elliot Eisner는 행동과학이 교육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육에 있어서 행동과학적인 인식론이 지배함으로써 다른 방법의 교육적 탐구를 제외시켰다. 측정이나 과학적 실험의 결과가 아닌 탐구는 의의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둘째로 행동과학은 조정과 통제를 시도한다. 조정과 통제의 ideology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상쇄시킨다. 셋째로 행동과학은 측정에 의한 표준화된 제품에 집착한다. 따라서, 개인의 독창성이 말살되고 평균치가 지배한다. 넷째로 행동과학이 지배하는 교육학 이론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된다.<sup>7)</sup>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학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인가? James Macdonald는 독일의 철학자인 Jürgen Habermas의 논리에서 찾으려 한다. 즉, 사실을 가치와 분리시키고 사실을 실증적·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며, 사실과 가치를 통합시켜서 사고하는 철학적 사고를 교육적 사고의 틀로 설정하려는 시도다. 또한 Dwayne Heubner는 실존철학에서 교육적 사고의 틀을 원용하려고 함을 볼 수 있으며, Elliot Eisner는 예술적인 사고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시도는 교육학이 행동과학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의의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교육적 사고의 틀이 행동주의화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행동주의적 교육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모델이 되었고,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학에서 행동주의

---

7) Elliot Eisner, Ibid, pp.17~20.

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대안적 사고의 틀을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대안으로서 퇴계의 통합적 교육사상을 제시하여 보려고 한다.

### Ⅲ. 退溪의 天人合一의 思想

퇴계의 교육사상은 무엇이며, 그의 교육사상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 퇴계가 지녔던 사상의 체계는 어떠한 것이고, 그의 그러한 사상적 체계는 교육사상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는가? 위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교육의 실제나 설계에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사상이며, 또한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철학이나 심리학 또는 사회학적 사상이다. 그러한 논리에서 우리는 우선 퇴계사상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성학십도》 중에서 天에 대한 개념과 心性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여 보려고 한다.

퇴계사상의 근본은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사상은 朱子의 성리학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퇴계는 성리학의 개념을 종합하여 알기 쉽게 圖로 만들어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유명한 《성학십도》다. 《성학십도》는 성리학에 대한 요약서인 동시에 퇴계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퇴계의 《성학십도》를 분석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天의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재원리’라는 것이다. <第一 太極圖>와 <第二 西銘圖>는 ‘天의 원리’로서 세계와 존재의 기본 법칙을 밝히고 《소학》·《대학》의 근본적 준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第三圖>에서 <第五圖>까지는 《소학》과 《大學》의 내용을 중심으로 ‘天의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인간존재 원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존재의 원리’는 다시 ‘心·性·情’의 문제로 구체화 되어 <第六圖>에서 <第七圖>까지 설명된다.<sup>8)</sup>

8) 高橋進, 『李退溪와 敬의 哲學』, 안병주·이기동 번역 (서울:신구문화사,

다시 말하면, 퇴계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天和 人’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天和 人’을 서로 합일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天의 원리가 인간의 존재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퇴계사상의 근본은 天人合一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지자연의 원리는 그대로 인간의 존재원리라는 것이다.

퇴계가 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원리를 설명했다는 것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태극도설>을 읽고 성리학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퇴계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자들이 理氣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 우선 <태극도설>을 읽어 보라고 권유하고 있기도 하다.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天의 원리로 출발하는 <태극도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또한, 퇴계의 제자들은 퇴계의 학문이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植立했다”고 평하고 있는데, 大原이란 道立之原出於天을 의미하는 것이고 大本이란 先立乎其大者, 中也者天下之大本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계의 학문은 천명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천명을 안다는 것은 유학의 근본적인 사상의 기초이기도 하다. 맹자는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그렇게 본다면 퇴계는 天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존재원리를 설명하였고, 거기서 다시 교육의 원리를 도출해 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天의 원리의 기본은 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태극도설>은 朱子에 의해서 그 이론이 그대로 전수되었고, 다시 퇴계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이론은 퇴계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수용되고 변용되었는가? 주렴계에 의하면 우주의 근본원리는 無極而太極이라는 것이다. 태극의

1986), pp.185~204.

9) 李相段, 『退溪의 生涯와 學問』(서울:서문당, 1973), pp.131~134.

10) 李相段, 같은 책, pp.181~183.

운동에 의해서 음양이 갈리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오행이 형성되고 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의 <태극도>에 의하면 1단락에서는 우주의 생성변화 과정을 설명한 천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 제2단락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에 대한 인간존재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 제3단락에서는 천의 원리와 인간존재의 원리가 합일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sup>11)</sup>

주렴계의 <태극도>는 조선조 초기에 權陽村에 의하여 발전 계승되어 <天人心性合一圖>로 나타난다. 양촌은 주렴계의 태극사상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존재 원리인 심성에 관한 논리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즉, 천의 원리는 천명이 인간의 마음(心)에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 원래의 모습은 性이며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의·예·지·신이다. 다시 그것이 理와 연결되었을 때는 四端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氣와 연결되었을 때 희·노·애·구·애·오·욕의 칠정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천명을 받아서 순전한 性이나 理의 특성을 갖지만 인간의 욕심이나 뜻(意)에 따라서 선악이 갈리는 것이라고 보고 인심과 도심이 합일되는 天人合一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敬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양촌의 <천인심성합일도>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 鄭秋巒의 <천명도>다. 양촌은 자연계를 무시하고 천과 인의 관계만을 설명하였는데 정추만은 천·지·인 삼자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sup>13)</sup> 퇴계도 그의 <<성학십도>>중의 제2도인 <西銘>에서 “乾은 父라 하며 坤은 母라고 한다. 나는 매우 작은 존재로서 혼연히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여 우주를 천·지·인의 삼자의 관계로 보려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14)</sup>

퇴계는 추만의 <천명도>를 수정 보완하여 <天命圖說後敍>에서 보다

11) 李滉, 『聖學十圖』, 『韓國의 儒學思想(2)』, 윤사순·이상은 공역(서울:삼성출판사, 1981), pp.237~239

12) 李相段, 같은 책, pp.189~196.

13) 李相段, 같은 책, pp.176~205.

14) 李滉, 같은 책, pp.330~337.

상세히 천인합일사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周子가 <태극도>에서 우주의 생성원리를 다섯으로 설명하였는데 당신은 왜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즉, 염계는 태극에서 부터 시작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퇴계는 생성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의 작용의 결과이고, 또한 음양은 한 태극에서 작용된 것이니 결국 모든 우주만물은 그 생성의 기원을 따지면 하나라는 것이다.<sup>15)</sup>

주렴계가 우주의 생성원리를 ‘無極太極’ ‘陰陽兩儀’ ‘五行’ ‘氣化’ ‘形化’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음에 반하여 퇴계는 하나의 둥근 원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퇴계가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와 자연계의 질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기본 원리는 天地人의 합일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합일의 관계는 순환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음양이 교차하고 오행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의 원리가 모든 우주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생성원리는 단절과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과 순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과 순환의 원리는 곧 천의 원리이면서 인간존재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sup>16)</sup>

지금까지 우리는 주렴계의 태극이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양촌과 추만을 거쳐서 퇴계에 의하여 어떻게 종합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주렴계가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직선의 개념에 의해서 전개시켰다면,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천지인 삼자의 상관관계를 원의 개념에 의해서 종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

15) 李滉, 『天命圖說後敍』, 『한국의 유학사상』, 세계의 사상(32), 윤사순·이상은 공역(서울:삼성출판사, 1990), pp.178~187.

16) 退溪思想의 근본이 天人合一思想에 있다는 것은 李相段·高橋進·裴宗鎬 등에 의하여 일치되는 견해다. 裴宗鎬, 『한국유학사』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4), pp.22~27 ; 이상은, 같은 책, pp.205~220 ; 高橋進, 같은 책, pp.115~136.

의 문제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심성논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조의 성리학이 理氣論으로 주요 쟁점을 삼고 있음은 그것을 잘 반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역학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理인가, 氣인가? 우리의 마음은 선한가, 악한가?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심리학이 교육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부정적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퇴계의 교육사상을 탐구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퇴계의 심성에 관한 견해는 그대로 그의 교육사상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의 심성관은 무엇인가?

퇴계의 심성관은 천인합일 사상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五性·四端·七情은 天의 사덕·오행과 상응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은 천명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서명>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혼연히 우주에 가득 찼다고 설명하며 인간의 심성이 천명과 일치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인간의 심성이 천명과 합일할 때는 四端의 정이 발현되어 인간의 행동이 순선하게 되지만, 인간의 심성이 천명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인욕에 좌우되어 불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길래 불선을 저지르게 되는가?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 천명과 합일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천명과 합치되지 않게 되는가?

퇴계는 인간의 마음이 理와 氣가 합쳐진 것으로 본다. 퇴계는 그의 제자인 申啓叔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7) 이상은, 같은 책, pp.227~231.

대체로 理와 氣가 합하여 心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니 氣의 테두리 부분은 氣이며 가운데의 공백은 理입니다. 다만 이것을 합쳐서 마음 테두리라고 명명하며, 理와 氣의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氣를 理와 함께 섞이지 않게 하여 가운데를 비어 두었으니……18)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천명을 받아서 순선하지만 그것이 마음 속에 있는 氣와 합쳐지는 경우는 악으로 흐를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理과 氣를 합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動하면 情이 되고 靜하면 性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性과 情도 다시 理과 氣으로 나누어진다. 마음이 정하여 성이 되고 다시 그것이 理과 합쳐질 경우는 그것은 천명이 준 본연지성으로서 인·의·예·지·신을 의미하게 되며, 거기에는 어떠한 악도 없는 무불선의 상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性이 氣와 합쳐지면 無質之性으로 나타나서 上智·中人·不愚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동하면 정이 되는데, 그 정이 理과 합쳐지면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발하여 역시 무불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여 정이 되고 그 정이 氣와 합쳐지면 희·노·애·낙·애·악·욕 등의 칠정을 나타나게 되어 유선유악이 된다는 것이다.19)

心の 근원은 천명인데, 그것은 理과 氣의 작용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으로 갈리면서 선악이 분리된다는 것이 퇴계의 심성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움직임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즉, 퇴계의 표현을 빌리면 心이 먼저 동하는가, 성이 먼저 동하는가? 또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마음은 환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인간의 내면적인 性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다.

18) 李滉, 『申啓叔에게 답함』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의 편지』(대구 : 퇴계학회 경북지부, 1989), p.395.

19) 李滉, 『사경에서 보냄, 別紙』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의 편지』(대구 : 퇴계학회 경북지부, 1990), pp.195~197.

여기에 대하여 퇴계는 심성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퇴계는 “심성은 혼연히 하나의 物이다. 동하는 것은 심이며, 동하게 하는 것은 성이라 하였으니 선후를 가를 수 없다”<sup>20)</sup>고 하였다. 이것은 심이 성의 관계를 體와 用으로 봄으로써 상호연관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또 심과 성의 관계를 所以然과 所能然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심의 동은 성의 소이연이요, 성의 동은 심의 소능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작용은 객관적인 환경의 작용으로만 볼 수도 없고 주관적인 성의 작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는 理도 발하고 氣도 발한다는 것이다. 그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다만, “理는 氣의 주재이고 氣는 理의 재료다. 이들은 원래 분별되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혼합되어 나눌 수가 없다. 다만 理은 약한데 비하여 氣는 강하며, 理는 조짐이 없는데 비하여 氣는 자취가 있다”<sup>21)</sup>는 것이 퇴계의 주리론의 논리다.

그러나, 퇴계는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의 작용이 근본적으로 천명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천의 원리인 元·亨·利·貞은 인성의 綱인 인·의·예·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삼강오륜의 인간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성인은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성이 자연적으로 실현되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氣의 작용으로 본연의 성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본연의 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sup>22)</sup> 다시 말하면 퇴계는 마음의 작용이 理과 氣의 혼합이지만, 인간은 理를 통하여 본성을 회복하고 천명에 합일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계의 우주관 및 심성관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

20) 李滉, 『金而精에게 答함(3)』 『한국의 유학사상』, 世界의 思想(32) (서울:삼성출판사, 1990), pp.140~145.

21) 李滉, 『四端七情을 理氣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는 奇明彦의 변증을 침부함』, 『退溪選集』, 윤사순 역 (서울:玄岩社, 1982), pp.222~224.

22)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윤사순 역(서울:玄岩社, 1982), pp.337~339.



그의 우주관 및 심성관의 특징을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 천·지·인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천·지·인의 합일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과 자연과 인간은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서로의 관계가 분열이나 단절의 상태가 아닌 상호 연관성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天·地·人을 등근 원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인간의 마음은 理과 氣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악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퇴계는 인간의 행동 결과는 그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계의 우주관 및 심성관은 어떠한 교육이론을 낳게 되었는가? 퇴계는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교육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교육의 실제 모습을 천착하여 그가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사상적 체계를 재구성하여 보려 한다.

#### IV. 퇴계의 통합 교육사상

##### 1. 교육목적의 통합

퇴계의 교육관을 살펴보면 그의 교육관은 완전히 그의 天人合一적 우주·심성관과 일치함을 볼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의 교육사상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목적에 있어서는 천의 원리에 합일하는 성인군자를 만들려는 것이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문인 정유일의 말처럼 “敬義夾持” “知行並進” “表裏如一” “本末並舉” “洞見大原” “植立大本”<sup>23)</sup> 등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23) 李相段, 같은 책, p.159.

다.

퇴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의 목적은 모든 인간을 성인의 경지에 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이란 그 덕성이 천지와 합치하며, 그 밝음이 일월과 합치하며, 그 질서가 네 계절과 합치하며, 그 길흉이 귀신과 합치한다.”<sup>24)</sup>라고 《성학십도》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서명>에는 성인이란 그 덕이 천지와 합치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 덕이 천도와 합치되는가의 여부가 성인과 중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sup>25)</sup> 따라서, 퇴계가 이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은 천도에 합치되는 인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천도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이상인데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성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연지성은 理와 합쳐져서 인·의·예·지 등의 사단으로 구체화되고, 그것은 다시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 등의 오륜의 실천덕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퇴계는 위와 같은 논리에서 우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 단계는 효·제·충·신 등의 일상 생활에서의 행위를 기초로 하며, 2차 단계는 천하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훈련을 거쳐서, 3차 단계로는 盡性至命에 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sup>26)</sup> 다시 말하면 천도의 원·형·이·정과 인도에서의 오륜은 서로 상응하는 것이라는 논리에서 오륜의 실천은 역으로 거슬러 오라가면 천도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천도는 없는 곳이 없으며, 사람과 만물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에 가득찬 것이 천명의 운행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伊尹은 ‘하늘의 밝은 명령을 돌아본다’라고 하였고, 맹자는 ‘일찍 죽고 오래사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24)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윤사순역 (서울:현암사, 1973), pp.326~327.

25) 李滉, 같은 책, pp.332~333.

26) 李滉, 『鄭子中에게 答함, 自省錄』, 『한국의 유학사상』, 한국사상 전집(2) (서울:삼성출판사, 1981), pp.49~51.

자기를 수양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천명을 확립하는 길이다'라고 하였으며, 공자는 '이치와 본성을 궁구하여 천명에 도달한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여 옛 성현들의 삶의 목표가 천도에 합일되는 것이었음을 설파하고 있다.<sup>27)</sup>

천도와 인도는 서로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천도의 이치는 인도에 미만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의 일상적인 덕목인 효제충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결국 천도와 합일되는 일단계 작업이며, 또한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의 수양을 기초로 해서 治人의 능력을 함양하고 끝으로 천도와 합일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형·이·정으로 구성된 천도는 인간의 본연지성인 理, 즉 인·의·예·지와 서로 상응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理氣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힘써서 理를 궁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인간의 자율의지에 의한 도덕적 결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육의 중요과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기술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天·地·人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목적이 인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계의 논리에 의하면 주관적인 인간의 세계와 객관적인 자연의 세계는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주관적인 세계와는 관계없이 인간 외적인 필요나 요구에 맞추어 설정되어 왔다.<sup>28)</sup> 그것은 결국 교육이 인간과 멀어지고 기계화되는 결과를 빚어놓고 말았다. 인간의 세계와는 거리가

27) 李滉, 『申啓叔에게 답함』, 『겨레의 큰 스승 退溪先生의 편지』 (대구:퇴계학의 경북지부, 1989), pp.393~398.

28) Elliot Eisner, Ibid, pp.97~100.

먼 객관적 사실이 기계적으로 교육의 목표에 덧붙여짐으로써 교육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훈련에 불과한 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에 의하면 자연과 인간은 서로 합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方寸은 곧 太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천도가 우리 마음속에 형상화된 인·의·예·지를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의·예·지를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오륜의 덕목이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치인의 단계로 교육목적을 확대시키며, 마지막으로 천명에 합일시키는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서양의 교육이 기술 또는 과학 위주로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반대로 동양 또는 한국의 교육이 인간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짐작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양의 과학 또는 기술 중심의 교육적 사상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처리함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게 되었는데, 퇴계는 자연과 인간 세계를 합일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교육을 보다 인간화시켰다는 것이다.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인간적인 요구나 도덕과 합일되는 교육학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인간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 2. 교육방법의 통합

앞에서 우리는 현대 교육학의 위기를 means-ends식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도식에서는 방법이 목적의 도구적 구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계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방법은 목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기계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교육방법을 목적에 예속되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교육의 과정이나 방법을 독립적인 기능 또는 목적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퇴계의 문인이었던 鄭惟一은 퇴계의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내용으로 특징지워 설명하고 있다. 첫째, 敬義夾持, 둘째 知行並進, 셋째 表裏如一, 넷째 本末並舉, 다섯째 洞見大原, 여섯째 植立大本 등이 퇴계 교육방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sup>29)</sup> 다시 말해서 퇴계의 교육방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목표 이상의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정유일이 제시한 여섯 가지 교육방법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첫째는 知行並進의 원리다. 둘째는 表裏如一, 本來並舉, 洞見大原을 묶어서 행동과학식의 훈련의 방법이 아닌 인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통찰학습방법의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 퇴계는 그것을 활연관통 또는 일이관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번째는 敬義夾持와 植立大本을 합쳐서 持敬의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

퇴계는 교육방법으로 知行并進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知行并進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학문이나 지식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퇴계는 남시보에게 답한 편지에서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 이치는 일용생활 속의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실제적이며 명백하게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버리고 성급히 高遠深大한 것을 일삼아 지름길에서 재빨리 얻으려 하지만 이는 子貢도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sup>30)</sup>

지식이 일상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는 퇴계의 천인합일사상에서 연원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식의 실체인 천도는 일용 생

29) 李相段, 같은 책, p.159.

30) 李滉, 『남시보에 답함, 自省錄』 『退溪選集, 윤사순역 (서울:현암사, 1982), pp.59~60.

활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용 생활 속에 숨겨진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것은 바로 知行并進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知行并進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가 문제다. 지식이란 《대학》에서 말하는 격물치지와 《중용》에서 말하는 博學·審問·慎思·明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公자가 말하는 博文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우선 지식의 축적을 행위에 우선해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대학》에서의 순서로 보아도 격물치지가 먼저 있고, 다음에 성의·정심·수신이 있으며, 다음에 제가·치국·평천하가 있다. 또한 《중용》에서도 博學·審問·慎思·明辨 다음에 篤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도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博學於文을 시키고 다음에 約之以禮를 시켰다.<sup>31)</sup>

다음으로 독행이란 수신·치사·접물의 세 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박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 그리고 물리적인 일 등에서 써 먹는다는 것이다. 퇴계는 《성학십도》 중의 <百鹿洞規圖>에서 知와 行을 강조하면서 독행을 수신·치사·접물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2)</sup> 이것은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즉, 우리의 지식이 활용되는 곳도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 그리고 물질적인 일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퇴계가 博文과 約禮 이외에 體察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는 배움(박문)과 실천과 생각(體察)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體察이란 글자 뜻 그대로 실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퇴계는 학문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박학과 독행이 진행되는 사이에 체찰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31) 李相段, 같은 책, pp.165~180.

32)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pp.348~351.

의미에서의 얹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sup>33)</sup>

우리는 여기서 퇴계의 교육방법이 얼마나 학습자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겠다. 현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을 기계적으로 의도하고 있는데 반하여, 퇴계는 지식과 실천과 사고의 삼자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면서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이 단순히 정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계적인 지식의 전달 과정에서, 지식과 실천의 사고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교육방법의 특징은 퇴계가 Gestalt식의 통찰학습방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동과학 이론가들의 단계적인 교육방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Benjamin Bloom은 교수방법의 설계 과제를 (1) 수업 목표의 설정 (2) 학습의 절차 분석 (3) 학습자료의 개발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Bloom은 학습의 단계를 설정하는 일이 교수방법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그것은 첫 단계는 다음 단계의 수업 목표에 기초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 단위의 목표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4)</sup>

퇴계는 金而精에게 답한 편지에서 학문은 각기 단절된 학습의 과제를 하나 하나 습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학문이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에의 지와 행과 심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보다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퇴계는 각기 단절된 학습과제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절차나 단계를 부정하고, 학습의 과정을 그 하나 하나의 장면이 知·行·心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창조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sup>35)</sup>

33) 李滉, 『南時甫에게 답함(1), 自省錄』, 『한국의 유학사상』, 한국사상전집(2) (서울: 삼성출판사, 1981), pp.47~48.

34) 김종석·이해명,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형설출판사, 1987), pp.80~82.

퇴계는 학문이 단편적인 사실의 습득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학문이 복잡한 사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구하는 일이 간혹 얽힌 것을 만나서 통 알 수 없거나, 혹은 나의 성이 우연히 여기에 어두워 밝혀낼 수 없을 때에는, 이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누적되고 깊이 익숙하여져서 자연히 마음이 점차 명석하여지고 의리의 실패가 점점 눈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sup>36)</sup>

라고 하여 하나의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데는 다른 사실과의 연관성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이란 단편적인 사실의 종합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이해가 가능하게 되지 기초 단계에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숙한 때는 이곳에 내버려두어도 온당하지 않고 저곳에 가져다 두어도 옳지 않다……성숙하면 이곳에 버려두어도 옳고 저곳에 버려두어도 옳으며 칠전팔도하여도 옳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sup>37)</sup>

따라서, 퇴계는 단편적 사실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방법을 부정한다.

밑에서부터 배워서 위로 통달하는 것은 차례로서는 마땅한 것이지만, 학자들이 오랫동안 공부해서 얻는 것이 없다면 중간에서 그만두기 쉽기 때문에 그 근본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만 못하다.<sup>38)</sup>

35) 李滉, 『金而精에게 答함(3)』, 『한국의 유학사상』, 세계의 사상(32) (서울:삼성출판사, 1990), pp.134~135.

36) 李滉, 『書二, 答李叔獻』 『국역 퇴계집(1)』 (서울:민추, 1968), pp.239~240.

37) 李滉, 『金而精에게 答한 別紙』, 『한국의 유학사상』, 세계의 사상(32) (서울:삼성출판사, 1990), pp.134~135.

38) 李滉, 『叔人, 言行錄(1)』, 『국역 퇴계집(2)』 (서울:민추, 1968), pp.240~



즉, 학문은 立志를 시작으로 해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은 모두 서로 합일되어 있으므로 혼란한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으니 그 이치를 터득하면 “활연관통”하고 “일이관지”하여 진정으로 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Gestalt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찰학습”(insight Learning)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학습의 과제를 단편적인 사실이 아닌 상호 연관된 질서로 보았으며, 따라서 학습은 step-by-step식의 기계적 절차가 아닌 통찰학습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퇴계가 사물을 분석적으로나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사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일상의 단편적인 사실이나 자연계의 현상도 本然之性인 理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사물을 물질적이고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기계문화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이나 일체감을 중시하는 퇴계학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계는 持敬을 교육방법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율적인 의지의 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敬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마음 속의 인욕을 배제하고 본성 속의 天理에 합일되기 위해서는 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성학십도》를 왕에게 올리는 글에서

경은 생각과 실천을 겸하는 것이며 움직이고(動) 고요함(靜)을 관통하는 것이며, 안과 밖을 합하는 것이며, 들어나고 은미한 것을 하나로 하는 원리입니다.<sup>39)</sup>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248.

39) 李滉, 『聖學十圖』, 『退溪選集』, 윤사순역, pp.

결국 敬의 상태를 이루는 까닭은 마음이 욕심을 버리고 본연지성인 천도에 합일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敬으로써 主를 삼아서 動과 靜에 다 敬을 잃지 아니하면 靜할 때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본성이 순수하게 되고, 또한 動할 때는 의리가 환히 드러나고 물욕이 없어져서 근심이 줄어들게 되므로 학문에 정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sup>40)</sup> 그는 敬을 지니는 한 방법으로서 집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는 남시보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친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수작을 적게 하고, 기호와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비워 편안하고 유쾌히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며, 그림이나 화초의 감상이라든가 山水와 魚鳥의 즐거움 같은, 진실로 情意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자주 접촉하여 심기를 항상 화순한 경지에 있도록 할 것이며 성내고 원한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sup>41)</sup>

이렇게 퇴계는 마음을 화순하게 하여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는 학문을 하기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朱子の 主一無適정신을 예로 들기도 한다. 잡다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마음이 오로지 학문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허명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가 주장하는 경의 정신도 천인합일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일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기본 목적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여 천인합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을 통하여서만 천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sup>42)</sup>

40) 李滉, 『金惇敍富倫에게 答함, 自省錄』 『한국의 유학사상』, 한국사상전집(2) (서울:삼성출판사, 1981), pp.56~60.

41) 李滉, 『남시보에게 答함, 自省錄』, 『退溪選集』, 윤사순역 (서울:현암사, 1982), pp.234~238.

이러한 논리는 사물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조정과 통제를 통한 실험의 결과, 즉 인과관계(cause and effect relationship)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경의 경지는 조정과 통제가 아닌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묘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의 눈으로는 통제된 결과만 보이지만 퇴계의 눈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모습이 모두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가 주장하는 경의 경지는 행동주의의 단편적 사고를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 V. 결 론

현대교육의 문제는 심리학적 사고의 틀이 교육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학적 사고의 틀이란 means-end식의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means-ends식의 접근방법 때문에 교육학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교육학은 교육의 목적과 학습의 방법에만 집착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 목적은 행동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조정가능한 것으로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긴요한 분야의 하나인 예술·문학·종교·도덕 등은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방법은 S-R에 의한 훈련의 기능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왔다. 따라서 거기에는 학습의 기쁨이나 창조해위가 있을 수 없는 기계적인 훈련과정만 있을 뿐이었다.

교육이 훈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의 기본

---

42) 李滉, 『論持敬, 言行錄(I)』, 『국역퇴계집(2)』 (서울:민족, 1968), pp.234~238.

적인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틀을 벗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인간을 기계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미국의 교육학이 그 돌파구를 실존주의나 독일 Frankfurt학파의 철학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경우도 60년대 이후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적 사고의 틀이 교육학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탈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계는 天人合一적 사고의 틀로 우주와 세계를 바라본다. 天道와 人道를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라는 사상이다. 즉, 天道에서의 원·형·이·정과 인도의 인·의·예·지는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理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본연지성인 인·의·예·지를 지켜 감으로써 천도에 합일될 수 있고, 이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도리를 완수하는 사람은 곧 성인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衆人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연지성인 理는 마음속의 氣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이 氣는 理와 합쳐지는 경우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다. 이 氣를 제어하고 理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본연지성인 인·의·예·지를 발휘하여 천도와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퇴계는 천인합일적 사상에서 안와 밖,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의 세계를 통합시키려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주의자들처럼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객관적인 사실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교육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立志에 있다고 말한다. 객관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들의 암기가 아니라,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 안과 밖을 통합하는 하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적 사고와는 서로 상치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퇴계의 교육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교육방법에 대한 논리다. 그는 교육방법을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상호 연관성 속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과정 속에 있는 아동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료(raw material)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사고하는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행병진의 논리고, 둘째는 통찰학습 방법이며, 셋째는 持敬의 학습 방법이다. 이것은 모두 천인합일적인 통합 교육사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학습방법을 극복하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퇴계가 주장하는 지행병진이란 知와 行과 思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구실로만 인식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또한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주관성을 강하게 갖는 학습자 자신의 참 지식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통찰 학습에 대한 퇴계의 독특한 견해다. 그는 지식이 단편적인 사실의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상호 연관성 또는 사물의 근본원리를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또한 우주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천인합일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물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기본원리를 통찰하는 것이 사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퇴계는 敬을 학습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경이야말로 인간이 욕심을 제거하고 본연지성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을 통한 순수한 성의 회복이야말로 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그는 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조정과 통제를 통하여 사물의 관계를 인과관계로만 파악하려는 행동주의적 발상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Maslow 등의 Third Force Psychologist들은 B-Cogni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물의 관계를 의도적인 통제의 결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퇴계의 교육사상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퇴계의 교육사상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퇴계의 교육사상이 성리학을 기초로 하여 발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리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교육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다. 동양교육이 극복하지 못했던 기술적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분명 그것은 이 시대가 갖는 중요 과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